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에 대한 메타 분석*

이하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후연구원

정세훈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Use Capacity and Information-seeking Behavior

Hana Lee**

(Postdoctoral researche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Hoon Jeong***

(Professor, School of Media and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In the age of digital media, information use capacity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use capacity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this study conducted a meta-analysis of 32 studi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information use capac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information-seeking behavior, with the average effect size of $r = 0.36$ (95% CI[0.28, 0.44]).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may enhance or diminish the favorable impact of information use capacity o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We investigated eight moderators in our study: (1) the theoretical framework employed (literacy theory or the RISP model), (2) the dimensionality of the measurement of information use capacity (single dimension or multiple dimensions), (3) the specific topic under investigation (general information, health information, or science/environmental information), (4) the research method employed (experiment, offline survey, online survey, or a mixed method), (5) the geographical region of the study participants (metropolitan, non-metropolitan, or nationwide), (6) the age group of the sample (college students, adults, or seniors), (7) the sampling technique employed (convenience sampling or quota sampling), and (8) the publication status of the research findings (published or non-published). Out of the total of eight moderators examined, it was found that four moderators, including the measuring dimension of information use capacity, topic, research method,

* This article was supported by the BK21 FOUR Progra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4120200613754)(본 논문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BK21 FOUR 사업의 지원을 받았음(관리번호 4120200613754)).

** nalee21@snu.ac.kr, first author

*** sjeong@korea.ac.kr, corresponding author

and region, exhibited statistical significance. First, regarding measurement, the effect size was stronger for single dimensional measurement compared to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for information use capacity. Second, regarding the topic, the effect size for health-related topics was stronger compared to general information topic. Third, regarding methods, the effect size was greatest for offline surveys, followed by mixed methods, and online surveys. Fourth, regarding region, the effect size was greater for samples recruited from non-metropolitan areas than from metropolitan areas and national samples. However, theory, age group, sampling method, and publication bias were not significant moderators. These findings provide insight into the various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use capacity and their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his study demonstrates the significance of an individual's information utilization skills in addressing the information gap and digital divide resulting from disparities in information-seeking behavior. Moreover, it serves to integrate and enhance two distinct theoretical frameworks, namely literacy theory and the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 model.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inform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media literacy education and health campaigns. This study is the first meta-analytic research conducted in Korea,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use capacity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Future research could increase the number of studies included in their meta-analysis, and might consider additional moderators. By doing so, we could further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use capacity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Keywords: Media Literacy, Health Literacy,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Information Insufficiency, Information-seeking Behavior

국문초록

최근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은 정보 이용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32개 연구의 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보 이용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 탐색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정적(positive) 효과가 있었으며, 평균 효과 크기는 $r = 0.36$ (95% CI [0.28, 0.4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정보 이용 능력이 정보 탐색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 또는 약화 시키는 조절 요인을 살펴보았다. 조절 요인으로서 (1) 이론 (리터러시 이론 vs RISP 모델), (2) 정보 이용 능력의 측정 차원 (단일 차원 vs 복수 차원), (3) 연구 주제 (일반 정보 vs 건강 정보 vs 과학/환경 정보), (4) 방법론 (실험 vs 오프라인 서베이 vs 온라인 서베이 vs 혼합), (5) 지역 (서울 vs 비수도권 vs 전국), (6) 표본의 연령대 (대학생 vs 비대학생 성인 vs 노인), (7) 표집 방식 (편의 표집 vs 할당 표집), 그리고 (8) 출판 여부 (출판 vs 비출판) 등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조절 변인으로 투입된 8개의 변인 중 4개의 변인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양한 조절 변인 중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조절 변인은 정보 이용 능력의 측정 차원과 연구 주제, 표본의 지역, 그리고 방법론이었다. 첫째, 단일

차원으로 정보 이용 능력을 측정했을 때가 복수 차원으로 정보 이용 능력을 측정했을 때에 비해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둘째, 연구 주제가 건강일 때가 일반 주제일 때보다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컸고,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표본의 지역은 비수도권일 때가 서울일 때보다, 서울일 때가 전국일 때 보다 그 효과가 컸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의 경우, 오프라인 서베이, 혼합 방법, 온라인 서베이 순으로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정보 이용 능력의 측정 차원과 연구 주제, 표본의 지역, 방법론을 제외한 나머지 조절 변인에 따른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 이용 능력이 정보 탐색에 미치는 효과가 배경이 된 이론이나 표본의 연령대, 표집 방식, 출판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어 : 미디어 이용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헬스 리터러시, 정보 불충분성, 정보 수집 능력, 정보 탐색 행동

1. 서론

온라인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이 보편화되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 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은 더욱 더 활발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 활동을 통해 얻고 있다. 실제로 일상적인 뉴스 이용에 있어서도 정보 탐색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를 검색해 본다는 응답(40.3%)이 단순히 포털 뉴스홈에서 제공하는 랭킹 뉴스를 보거나(29.6%), 포털 뉴스 편집 메뉴/홈에서 뉴스를 본다는 응답(25.4%), 포털에서 구독하는 언론사의 뉴스를 본다는 응답(20.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이전까지는 뉴스를 적극적으로 검색해서 본다는 응답보다 인터넷 포털 첫 화면이나 뉴스홈에 제공된 뉴스를 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 개인의 정보 탐색 행동이 뉴스 이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정보 탐색 행동이 중요한 미디어 이용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정보 탐색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선행 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이론적 맥락에서 미디어 이용자 개인의 리터러시 능력이나 정보 수집 능력, 정보에 대한 충분성 인식 등이 정보 탐색 행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미디어 이용자가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탐색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리터러시 능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보 탐색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다양한 리터러시 개념에 주목하여 정보 탐색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김경화·최정화, 2021; 김희주, 2022)이 있으며, 뉴미디어 리터러시와 뉴스 팩트체크 행동(이병관·노환호·이태준, 2021), 리터러시 역량과 팩트체크 정보 추구(서정선, 2022)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시 다양한 정보 탐색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연구에 활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건강정보 추구 행동(권예지·나은영·이상엽, 2018), 인터넷 정보 이용(송효진, 2014),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 의도(이민지·안순태, 2016), 정보 검색 행동(이하나·황유리·정세훈, 2021), 노인의 건강정보 행동(안순태·임유진·정순달, 2020)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다양한 연구들에 활용되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리터러시와 인터넷에서의 건강 정보 탐색 행동(김남선·이규은·손현정, 2016), 뉴스 리터러시와 추가 정보 탐색 의지(최창식, 2021)의 영향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등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디지털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스마트폰 리터러시 등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다양한 연구에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리터러시 개념은 헬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헬스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확장된 개념인 헬스 리터러시와 건강 관련 정보 탐색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e-헬스 리터러시와 온라인 정보 탐색에 관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리터러시가 높은 개인일수록 온라인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건강 정보를 찾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 Xie, 2017). 국내에서도 헬스 리터러시와 정보 탐색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개별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들은 헬스 리터러시와 온라인 건강 정보 추구/이용 행동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거나(김경원, 2021; 안순태·정재선, 2019), e-헬스 리터러시와 인터넷 건강 정보 추구/소비/이용 행동의 관계(김미나·유양숙·황경혜·조옥희, 2019; 김해원, 2022; 남영희·정인숙, 2020; 손현정·강현욱, 2022 등), e-헬스 리터러시와 모바일 건강 정보 이용의 관계(박상희, 2020)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한편 미디어 리터러시나 헬스 리터러시 이외에 위험정보탐색처리(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이하 RISP) 모델에서는 정보 불충분성 인식 또는 정보 수집 능력이 정보 탐색 행동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정보 불충분성은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정보 불충분성의 인식 정도와 정보 탐색 행동은 매우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ang, Aloe, & Feeley, 2014). 정보 불충분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정보 불충분성이 높으면 정보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특정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정보 수집 능력은 개인이 인식하는 특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정보 수집 능력이 높을수록 정보 탐색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정보 불충분성 및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 탐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정보 불충분성과 미세먼지 정보 탐색(구유희·안지수·노기영, 2020), 원자력 정보 탐색(김효정, 2019), 메르스 정보 탐색(서미혜, 2016), 코로나19 관련 정보 탐색(안지수, 2022; 진범삼·윤영집, 2021) 등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들이 있다. 또한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수집 능력 두 가지 요인과 정보 탐색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왕재선·문정욱, 2021; 이해규·백혜진, 2019)과 정보 수집 능력 변인만을 이용하여 정보 탐색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영욱·김영자·김수현, 2018)가 있다. 이처럼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수집 능력은 질병이나 환경 이슈와 관련된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메타분석 방법론을 통해 개인의 정보 이용 능력이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보 이용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와 헬스 리터러

시, 나아가 위험정보탐색(RISP) 모델에서 정보 탐색을 야기하는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 불충분성까지 확장하여 분석에 포함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조절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에 쓰인 이론, 정보 이용 능력의 측정 차원, 연구 주제, 연구 방법, 표본의 특성(지역, 연령대), 표집 방식, 출판 여부 등을 조절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보 이용 능력을 검토한 다양한 연구들은 연구의 세부 주제, 이론적인 배경, 연구 방법이나 표집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데,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메타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서미옥, 2011). 메타 분석의 장점은 다양한 연구에 쓰인 조절 변인이 관찰된 효과 크기의 변화를 설명하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Lipsey & Wilson, 2001). 이 연구를 통해 ‘개인이 인식한 정보 이용 능력이 정보 탐색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에 포함된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일반화된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배경

1)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

(1) 리터러시 이론 : 미디어 리터러시 및 헬스 리터러시와 정보 이용의 관계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하는 ‘리터러시(literacy)’ 개념은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변화해 왔다.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분석·평가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ability to access, analyze, evaluate, and create message in a variety of forms)”으로 정의된다(Aufderheide, 1993; Christ & Potter, 1998, p. 7). 리빙스톤(Livingstone, 2004)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접근(access)과 분석(analyze), 평가(evaluate)와 창조(create)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 능력, 상징적인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인 평가 능력, 새로운 콘텐츠의 생산 능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발전한 뉴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보다 적합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의미한다(Koc & Barut, 2016). 첸과 동료들(Chen, Wu, & Wang,

2011)은 뉴미디어 리터러시는 소비(consuming)와 생비(prosuming), 그리고 기능적(functional)과 비판적(critical) 이용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적 연속체(continuum)로 구성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에서 소비는 미디어 메시지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능력이며, 생비는 미디어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 생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능적 이용이란 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판적 이용이란 메시지에 내재된 사회적 가치와 이념을 알고, 미디어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며, 미디어 메시지를 얼마나 비판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처럼 뉴미디어 리터러시는 그 개념이 복수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따라 정보 이용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뉴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짜뉴스 노출(김은정·유홍식, 2020; 염정운·정세훈, 2019),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뉴스 노출(김형지 등, 2020) 혹은 가짜뉴스 수용(신지민·이성식, 2020)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들에서 뉴미디어 리터러시의 역할은 그 리터러시의 구분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가짜뉴스 노출의 경우, 뉴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중에서 기능적 생비 능력과 비판적 생비 능력은 가짜뉴스 노출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염정운·정세훈, 2019), 이와 유사하게 김은정과 유홍식의 연구에서도 비판적 생산 리터러시는 가짜뉴스 노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능적 소비 리터러시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정과 유홍식의 연구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노출이 아닌 가짜뉴스를 받아들이거나 활용하려는 수용 태도의 경우에는 기능적 소비와 비판적 소비, 비판적 생산이 가짜뉴스 수용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기능적 생산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미디어 리터러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뉴스 리터러시가 가짜뉴스 노출이나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뉴스 리터러시 수준이 증가할수록 가짜뉴스나 팩트체크 뉴스 노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형지 등, 2020), 또 다른 연구에서는 뉴미디어 리터러시가 친정부 가짜뉴스 수용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지민·이성식, 2020). 정리하자면 비판적 생비 리터러시가 가짜뉴스 노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된 연구 결과(김은정·유홍식, 2020; 염정운·정세훈, 2019)도 있지만 이외에는 리터러시의 종류에 따라 혹은 노출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건강정보추구행동(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HISB)과 관련된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와 e-헬스 리터러시(e-health literacy) 역시 정보 탐색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헬스 리터러시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관련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건강 정보나 서비스를 얻고 접근하며 이해하는 능력 수준'을 뜻하며(Ratzan &

Parker, 2000), 헬스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경우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하게 된다. e-헬스 리터러시는 헬스 리터러시의 한 종류로 노먼과 스킨너(Norman & Skinner, 2006)는 이를 '온라인에서 건강 정보를 탐색하며 이해 및 평가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온라인을 통한 건강 정보 이용이 일상화가 된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얻은 건강 정보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헬스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헬스 리터러시와 다양한 건강 행동 사이의 연관성이 검증되었으며(Andrus & Roth, 2002), 헬스 리터러시가 낮은 사람들은 헬스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들보다 온라인에서 관련 없는 정보 탐색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Kim & Xie, 2017),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에도 e-헬스 리터러시 수준은 온라인 건강 정보 탐색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Kwon, 2018). 또한 헬스 리터러시가 높은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이병관·변용준·임주리, 2010),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박동진·권명순·최정화, 2013), 온라인에서 건강 관련 정보 탐색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Chang et al., 2015).

조금 더 구체적으로, 헬스 리터러시와 정보 탐색 행동 사이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헬스 리터러시가 낮은 개인은 일상 생활 뿐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응급 상황에서도 건강 정보를 찾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haw, Ibrahim, Reid, Usher, & Rowlands, 2009; Von Wagner, Semmler, Good, & Wardle, 2009). e-헬스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직장인의 인터넷 건강 정보 추구 행동이 높았으며(김미나 등, 2019), 유아 부모의 e-헬스 리터러시는 이들의 건강 정보 추구 행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해원, 2022). 한국과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남영희·정인숙, 2020)에서도 두 집단 모두 e-헬스 리터러시가 건강 정보 이용 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들(박상희, 2020; 손현정·강현욱, 2022; 안순태·정재선, 2019; 이성삼·손현정·이동숙·강현욱, 2017; 임홍아, 2021 등)에서 헬스 리터러시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의 건강 정보 탐색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 리터러시와 온라인 건강정보추구 사이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들과 달리, 일부 연구들은 둘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거나(심민선·조희숙·정수미, 2018; 조옥희 등, 2021)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김성은·박동진·최정화, 2019) 보고했다. 조옥희 등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부모의 e-헬스 리터러시는 인터넷 건강 정보 추구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민선 등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온라인 건강 정보 추구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자신

의 헬스 리터러시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와 체중 조절과 같은 건강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온라인이 아닌 다른 전통 미디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결과 온라인 정보 탐색과의 관련성이 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심민선 등, 2018)

정리하자면, 리터러시 이론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헬스 리터러시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오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더 유용한 정보를 탐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지만 연구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리터러시 능력이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 능력에 미디어 리터러시와 헬스 리터러시를 포함하여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실시하고, 정보 탐색 행동에 대한 리터러시 능력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 : 정보 수집 능력 및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이용의 관계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이 인식하는 정보의 불충분성이며(김효정, 2020; 이해규·백혜진, 2019; 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 Griffin, Neuwirth, Dunwoody, & Giese, 2004; Griffin et al., 2008 등), 메타 분석 연구(Yang et al., 2014)에서도 정보의 불충분성이 위험정보탐색처리 모형의 핵심 변수로 보고된 바 있다. 정보 불충분성은 개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보의 양과 현재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를 의미하며, 개인은 자신이 가진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낄수록 새로운 정보를 더욱 탐색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Kahlor, Dunwoody, Griffin, Neuwirth, & Giese, 2003). 정보 탐색에 대한 크리켈라스(Krikelas, 1983) 모델에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동기부여 되고, 불확실성은 정보 탐색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된다. 또한 쿨타우(Kuhlthau, 1991)의 모델에서도 개인이 불확실성의 감정을 갖게 되면 이것이 이후의 정보 탐색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즉, 개인이 어떤 주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식하게 되면 추가적인 정보 탐색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에서 정보 불충분성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의 연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메타 분석 결과에서 정보 불충분성은 정보 추구의 유의미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 불충분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보를 찾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Liu, Yang, & Feeley, 2022).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의 맥락에서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탐색에 대해 다룬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해규와 백혜진(2019)의 연구에서 정보 불충분성은 정보 수집 능력과 상호작용 없이 정보 탐색 행

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미혜(2016)의 연구에서도 메르스에 대한 정보 불충분성은 메르스 관련 정보 탐색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을 했다. 원자력 관련 정보 탐색 의도에 대해 살펴본 김효정(2019)의 연구 역시 원자력 관련 정보 불충분 인식은 정보 탐색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외에도 여러 연구(왕재선·문정욱, 2021; 진범섭·윤영집, 2021)에서 정보 불충분성은 정보 탐색 의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에서 정보 불충분성과 함께 정보 탐색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은 개인의 정보 수집 능력이다. 정보 수집 능력은 위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자 정보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Griffin et al., 1999) 개인이 정보를 얼마나 수집할 수 있는지, 자신이 그 정보를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김영옥 등, 2018).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에서 정보 수집 능력은 정보 불충분성과 함께 정보 탐색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Yang et al., 2014),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가정된다(Griffin et al., 1999). 정보 탐색 행동에 있어 정보 수집 능력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정보 수집 능력이 정보 탐색과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한다. 먼저 김영옥, 이현승, 이혜진, 그리고 김혜인(2017)의 연구에서 정보 수집 능력이 높을수록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탐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왕재선과 문정욱(2021)의 연구에서도 공무원의 정보 수집 역량 인식은 지능 정보 기술에 대한 정보 탐색 의도를 강화하는 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 탐색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고하는 연구들(김영옥 등, 2018; 김효정, 2019)이 있다.

그렇다면, 정보 불충분성이나 정보 수집 능력과 같은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 능력은 위험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데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해외에서는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에서 적극적인 정보 탐색 행동의 선행 요인을 살펴보는 메타 분석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예를 들면, Liu et al., 2022; Wang, Shi, & Kong, 2021; Yang et al., 2014), 현재 국내에서는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정보 탐색 행동에 대한 개별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뿐 개인이 스스로 인식한 정보 이용 능력과 같은 선행 요인과 정보 탐색 행동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토한 메타 분석 연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의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수집 능력과 같은 개인의 정보 이용 능력이 과연 정보 탐색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그 효과를 조절하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조절 변인

(1)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개인의 정보 이용 능력이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으로서 첫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떠한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는가에 따라 정보 이용 능력이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정보가 제공되는 맥락과 동기를 파악하여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정보를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의 생산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헬스 리터러시 역시 개인이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개인이 건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해석하며, 적절한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즉, 리터러시 이론에서는 리터러시가 높은 개인은 다양한 정보를 적절하게 검색하고 평가하며, 탐색하고자 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한편,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에 따르면 위험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개인은 관련 정보를 추구하거나 회피하도록 동기 부여되며, 여기에서 정보 부족과 인지된 정보 수집 능력은 새로운 정보 추구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Chang & Huang, 2020).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낀 개인은 다른 정보를 찾아보려고 하며, 정보 수집 능력이 높은 경우 적절한 검색어를 선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적극적인 정보 탐색 행동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이론적 배경에서 진행되었으나,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정보 이용 능력'과의 관계는 크게 리터러시 이론과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이론적 배경에서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을 대상으로 이론적 배경에 따라 정보 탐색 행동에 대한 효과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정보 이용 능력의 측정 차원

정보 이용 능력은 단일 차원으로 측정되기도 하지만 연구에 따라 복수의 차원으로 측정되어 분석에 활용되기도 한다. 리터러시 개념의 경우, 정의에 포함된 접근, 생산, 비판 등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포함하여 복수 차원의 변인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이용 능력의 다양한 차원은 정보 탐색 과정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와 직접적인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각 연구에서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구분에 따라 정보 탐

색 행동과의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예를 들면, Alam, 김균수, 2018; 권예지 등, 2018). 국내에서 이뤄진 헬스 리터러시와 정보 탐색 관련 연구들 역시 헬스 리터러시를 복수의 차원(접근, 이해, 판별, 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한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와 마찬가지로 리터러시 차원에 따라 정보 탐색 행동과의 관계가 각 차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성은 등, 2019). 헬스 리터러시 역시 미디어 리터러시와 유사하게 전 반적으로는 정보 탐색 및 이용 행동과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이지만 헬스 리터러시를 어떠한 차원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 상관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리터러시 이론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헬스 리터러시를 정보 이용 능력으로 함께 고려하여 측정 차원에 따른 정보 탐색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나이가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에서 정보 탐색 행동의 중요한 선행 요인이 되는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수집 능력은 모델 내에 동시에 투입되어 정보 이용 능력의 두 가지 차원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활용되어 단일 차원의 정보 이용 능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수집 능력이 각각 독립적으로 정보 탐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혜규·백혜진, 2019)를 보면, 두 변인은 각각 정보 탐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둘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위험 정보 탐색을 다룬 국내의 많은 연구들에서 정보 수집 능력은 주로 조절 변인의 역할로 활용되었지만, 정보 불충분성과 같이 정보 탐색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 이용 능력의 독립적인 차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수집 능력을 미디어 이용자 개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정보 이용 능력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들 변인이 단일 차원으로 측정되었을 때와 함께 복수 차원으로 모델에 포함되었을 때,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하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리터러시 이론과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의 맥락에서 개인의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개인이 인식한 정보 이용 능력을 단일 변인으로 측정하여 연구에 투입할 뿐만 아니라, 복수의 변인으로 구성하여 정보 탐색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나 헬스 리터러시,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수집 능력과 같은 정보 이용 능력이 복수 차원으로 분석에 투입될 경우 정보 탐색 행동과 부분적으로 상이한 영향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적극적인 정보 탐색에 필요한 능력의 다양한 측면 중 어느 부분을 분석에 투입하느냐에 따라 특정 정보 이용 행동과 더 높거나 낮은 연관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정보 이용 능력이 적극적인 정보 탐색 행동에 전반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의 정보 이용 능력에 대한 차원 구분이 정보 탐색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측정 차원을 조절 변인에 포함하여 측정 차원에 따른 효과 크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주제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는 그 주제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Wang et al., 2021). 예를 들어, 위협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정보 불충분성은 정보 탐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예측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정보의 주제에 따라서 그 영향 관계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구윤희 등(2020)의 연구에서 미세먼지 위험과 관련된 정보 불충분성은 정보 탐색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서현과 김영옥(2015)의 연구에서도 불산 유출 주제에 대해서는 정보 불충분성이 높을수록 정보 탐색을 덜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다룬 연구(김영옥 등, 2017)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 불충분성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정보 탐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코로나19 관련 정보 탐색에 대해 살펴본 안지수(2022)의 연구에서 정보 불충분성은 코로나19 정보 탐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도 정보 탐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결과는 특정 주제에 대해 이미 많은 정보가 주변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정보 과부하로 추가 정보를 찾고 싶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지수, 2022).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주제의 정보 탐색이 아닌 특정한 주제, 예를 들면 환경이나 건강과 같은 주제의 내용에 따라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용하는 정보의 주제에 따라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이루어진 메타 분석(Liu et al., 2022)에서는 환경이나 건강과 같은 위험 정보 탐색의 주제(risk topics)가 정보 추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조절 변인이 아니라는 결과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에 있어 정보 주제의 조절 효과를 조금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각 연구에 쓰인 연구 주제를 조절 변인의 하나로 구성하였다.

(4) 연구 대상의 특성 (표본의 지역 및 연령대)

정보 이용 능력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은 개인의 정보 이용 능력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중요한 변인으로 활용되었고 (안정임·서윤경 2014; 황용석·박남수·이현주·이원태, 2012; Czaja, Manfredi, & Price,

2003; DiMaggio, Hargittai, Neuman, & Robinson, 2001; Hovick, Liang, & Kahlor, 2014), 인구사회학적 배경 중 연령은 리터러시 수준이나 정보에 대한 인식 정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고 있다(남수정, 2013; 안정임·서윤경, 2014; 최인호·염정윤·김류원·정세훈, 2018; 황용석 등, 2012). 뉴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연령의 주효과를 검증한 최인호와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뉴미디어 리터러시의 4가지 유형(기능적 소비, 비판적 소비, 기능적 생산, 비판적 생산)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리터러시 능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김경희와 김광재, 이숙정(2019)의 연구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다양한 유형(접근과 통제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사회적 소통 능력, 책임과 권리 능력)에서 세대 간 격차가 발견되었다. 나아가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에서도 개인의 연령은 위험과 관련된 정보 탐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고려된다(Liu et al., 2022; Yang et al., 2011; Yang & Huang, 2019). 연령이 낮을수록 정보 불충분성이 크며(Griffin et al., 2004), 연령이 정보 탐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욱 등, 2018; Wang et al., 2021).

표본의 특성과 관련하여 조사 지역도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이 사는 지역사회의 유형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부분적인 지표 역할을 한다(Park & Kwon, 2018).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거주 지역별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거나(심미선, 2022; 안성훈, 2017), 지역에 따른 리터러시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남수정, 2013)도 있다. 이와 같이 연령이나 조사 지역이 개인의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메타 분석의 조절 변인에 포함하고자 한다.

(5) 기타 (표집 방법, 연구 방법, 출판 여부)

앞서 살펴본 조절변인 외에 본 연구는 연구 방법과 표집 방법, 출판 여부에 따른 효과 크기의 차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에 이루어진 메타분석 연구들에서도 표집 방법과 같은 조사 방법의 차이가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Skoric, Zhu, Goh, & Pang, 2016; Wang et al., 2021; Yang et al., 2014). 또한 정보 이용 능력은 조사 대상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정보 이용 능력에 대한 평가인데, 연구 방법에 따른 응답 상황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연구에 쓰인 연구 방법에 따라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영향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 역시 조절 변인에 포함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출판 편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보다 출판될 가

능성이 더 높다는 가정 아래에서 발생한다. 출판 편향이 존재하는 경우, 메타 분석 결과는 주어진 관계를 과대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Liu et al., 2022; Rothstein, Sutton, & Borenstein, 2005; Yang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출판 편향을 조절 변인에 포함하는 것 이외에 깔때기 도표(funnel plot)와 안전성 계수(fail-safe N)를 계산하여 출판 편향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정보 탐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메타 분석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을 바탕으로 메타 분석을 통해 모델의 전반적인 효과 및 설명력을 평가하는 연구(Liu et al., 2022; Yang et al., 2014), 건강 정보 검색(Health Information Searching: HIS)의 선행 요인들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Chang & Huang, 2020; Wang et al., 2021)가 있다. 이외에도 소셜 미디어에서 건강 관련 주제에 대한 정보 탐색 행동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Zhao & Zhang, 2017)가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관련 인터넷 사용(Park & Kwon, 2018)과 e-헬스 리터러시 관련 문헌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systematic review)를 하는 연구(Kim & Xie, 2017)도 있다. 특정한 하나의 이론적 배경이 아닌, 다양한 이론적 맥락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모아 온라인 정보 탐색의 선행 요인에 대해 메타 분석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왕과 동료들의 연구는 정보 검색의 포괄적 모델(CMIS : Comprehensive Model of Information Seeking), 문제 해결 상황 이론(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계획된 위험정보탐색추구 모델(Planned risk information seeking model)을 바탕으로 그 안에 포함된 다양한 선행 요인을 심리사회적, 도구적, 상황적,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건강 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정보 탐색 행동에 대한 다양한 메타 분석이 이루어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정보 탐색 행동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메타 분석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서 정보 탐색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선행 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점차 축적되고 있지만 이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메타 분석을 통해 정보 탐색 행동에 대한 개인의 정보 이용 능력 변인들의 전반적인 효과를 살펴보고, 그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변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조절 변인 중 이론적 배경(리터러시 이론,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에 따른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어떠한 이론에 기반하는가에 따라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본다는 점에서 각각의 이론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보 이용 능력이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능력으로 보이지만, 정보의 품질을 판단하거나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등 복수의 하위 차원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이용 능력의 측정 차원을 조절 변인에 포함하여 측정 차원에 따른 효과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보의 주제는 적용되는 학문 분야(일반 커뮤니케이션 분야,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 등)와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에서 연구 분야에 따른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 차이를 검토하는 함의를 지닐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정보 이용 능력이라는 것은 이용자 스스로에 대한 평가이자 인식이라는 점에서 연구에 활용된 방법론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표본의 지역 및 연령대의 경우에도 디지털 격차와 연결지어 그 결과를 살펴볼 수 있기에 조절 변인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석 대상 선택의 편향을 검토하기 위해 출판 편향을 조절 변인에 포함하였다. 즉, 정보 탐색 행동이라는 동일한 종속 변인을 다룬 연구라 하더라도 각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 주제, 측정 방법이나 표본의 특성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른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서미옥, 2011) '분석에 대한 분석'(analysis of analysis)으로 불리는 메타 분석(Glass, 1976)을 통해 같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정보 이용 능력(미디어 리터러시, 헬스 리터러시, 정보 불충분성,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전반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조절변인(이론적 배경, 정보 이용 능력의 측정 차원, 정보의 주제, 방법론, 표본의 지역 및 연령대, 표집 방법, 출판 여부)에 따라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4. 연구 방법

1) 문헌 검토

본 연구는 2023년 1월 15일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두 명의 박

사급 연구원이 논문 검색과 추출 작업을 담당하였다.¹⁾ 문헌의 추출은 누리미디어(DBPIA), 한국교육원(e-article),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교보문고 스콜라 등의 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먼저, '리터러시', '정보 수집 능력', '정보 불충분성', '정보 검색', '정보 탐색', '정보 추구'와 'literacy', 'information insufficiency',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information seeking', 'RISP' 등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총 2,229편의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이 중 학술지 게재 논문은 총 1,664편, 석박사 학위 논문은 총 565편이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록이나 제목, 키워드에 주요 변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논문 1,405편을 제외했고,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중복으로 수집된 연구 434편을 추가로 제외했다. 이러한 1차 검증을 통해 학술지 게재 논문 238편, 석박사 학위 논문 152편 등 총 390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는 남은 연구 중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논문 121편을 제외하고, 원문을 이용할 수 없는 4편의 연구를 제외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정보 이용 능력' 관련 변인(미디어 리터러시, 헬스 리터러시, 정보 수집 능력, 정보 불충분성)이나 '정보 탐색 행동' 중 한쪽 변인이 연구에 부적절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두 변인 모두 연구에 사용하기 적절했으나 통계값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등 총 233편의 논문들을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본 메타 분석에 필요한 통계치(상관관계 값)가 보고되지 않은 논문들은 저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해당 통계 수치 제공을 의뢰하였고, 개별적으로 상관관계 값을 제공 받은 연구를 포함하여 총 32개 논문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²⁾

1) 두 명의 연구원은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에 포함되는 주요 개념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분석 대상의 선정 기준을 공유했다. 그리고 논문 수집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각각에 대해 코딩 결과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했다.

2) 메타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연구 수가 많을수록 보다 폭 넓은 통합적인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메타 분석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전반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 문제와 관련된 올바른 연구들을 선택하는 것이 분석 대상의 연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하다. 메타 분석에서 타당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 수를 늘리기보다 동일한 변인을 다룬 연구들을 명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서미옥, 2011).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총 32편으로 매우 많은 수는 아니지만, 유사한 주제를 다룬 해외 메타 분석 연구들이 10여 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Park & Kwon, 2018; Yang et al., 2014)도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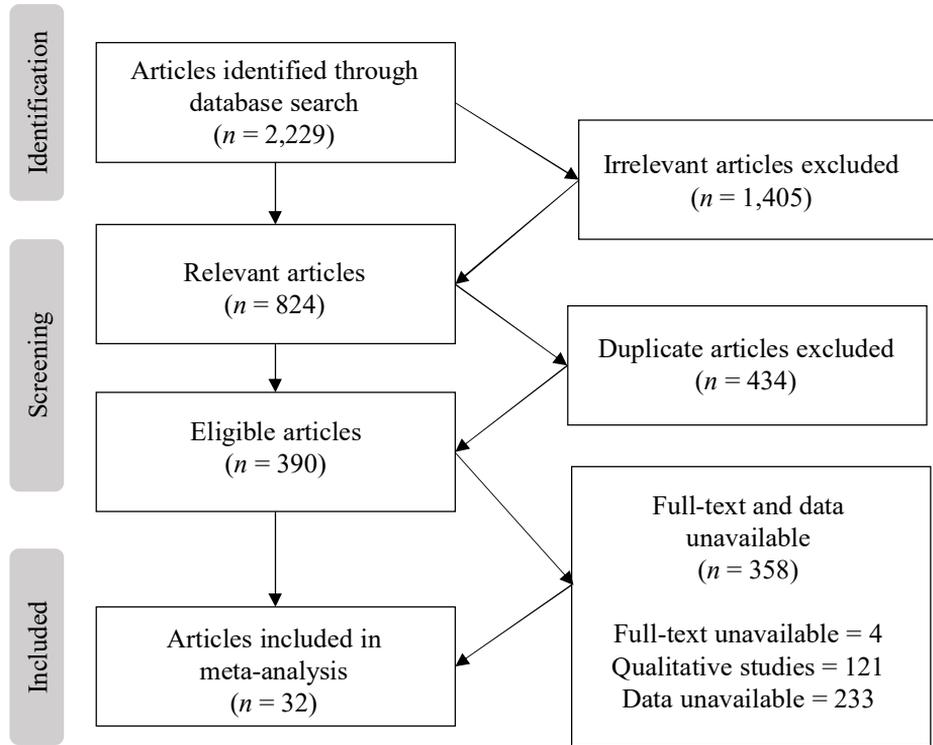


Figure 1. Literature research and the selection of studies eligible for meta-analysis

메타 분석의 경우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는 논문의 수 대신 효과 크기의 수(K)로 효과 크기는 개별 연구에서 결과 값들을 각각의 측정치로 간주하고 이들의 산술 평균으로 계산한다(엄정운·정세훈, 2019; 최인호 등,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2개 효과 크기가 분석에 활용되었고, 분석에 포함된 최종 연구 목록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은 메타 분석 프로그램인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Software) 2.0을 이용하였다.

Table 1. List of Studies

Author (year of publication)	Information Use Capacity	Information-Seeking Behavior
Alam·김균수 (2018)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페이스북 뉴스 이용
구윤화·안자수·노기영 (2020)	정보 불충분성 인식	미세먼지 위험 정보 탐색
권여지·나은영·이상엽 (2018)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건강 정보 추구
김경원 (2021)	디지털 리터러시, 헬스 리터러시	건강 정보 추구

김경화·최정화 (2021)	비판적 이해능력	정보추구행동
김남산·이규은·손현정 (2016)	스마트폰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 정보 추구
김미나·유양숙·황경혜·조옥희 (2019)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 정보 추구
김성은·박동진·최정화 (2019)	건강문해력	인터넷 건강 정보 이용
김영옥·김영자·김수현 (2018)	정보 수집 능력	기후변화 정보 탐색
김해빈 (2022)	e-헬스 리터러시	건강정보 소비활동
김효정 (2019)	정보 불충분성 인식	원지력 정보 탐색
김희주 (2022)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추구전략
남영희·정인숙 (2020)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 정보 이용
박상희 (2020)	e-헬스 리터러시	모바일 건강 정보 이용
서미혜 (2016)	정보 불충분성 인식	메르스 관련 위험 정보 탐색
서정선 (2022)	리터러시 역량	팩트체크 정보추구
손현정·강현욱 (2022)	e-헬스 리터러시	건강정보추구행위
송효진 (2014)	디지털 리터러시	인터넷 정보 이용
안순태·정재선 (2019)	헬스 리터러시	온라인 건강 정보 행동
안순태·임유진·정순돌 (2020)	디지털 리터러시	건강 정보 행동
안지수 (2022)	정보 불확실성	정보 추구
왕재선·문정옥 (2021)	정보 불충분성, 정보수집 역량	정보 탐색 의도
이민지·안순태 (2016)	디지털 리터러시	SNS 건강 정보 이용
이병관·노환호·이태준 (2021)	뉴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팩트체크 행동
이성심·손현정·이동숙·강현욱 (2017)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 정보 추구
이영희·지은주·윤옥중 (2019)	인터넷 건강 정보 문해력	건강정보 추구
이하나·황유리·정세훈 (2021)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검색
이혜규·백혜진 (2019)	정보 수집 능력, 정보 불충분성	지진 정보 추구
임홍아 (2021)	e-헬스 리터러시	온라인 건강정보 지향
조옥희·황경혜·김미나 (2021)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진범섭·윤영집 (2021)	지식 불충분성	위험정보 탐색 의도
최창식 (2021)	뉴스 리터러시	추가정보 탐색 의지

2) 코딩

조절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코딩 절차가 이루어졌다. 먼저 독립변인인 정보 이용 능력에 해당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헬스 리터러시, 정보 불충분성 및 정보수집능력 등의 개념을 동원하는 데 활용된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첫 번째는 리터러시 이론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뉴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리터러시, 헬스 리터러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헬스 리터러시에는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 정보 문해력, 건강 문해력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로 정보 불충분성 인식과 정보 수집 능력이 이 이론에 해당된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은 리터러시 이론(= 1), RISP 모델 이론(= 2)으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정보 이용 능력 관련 변인의 측정 차원을 단일 차원과 복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앞서 선행 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라 하더라도 단일 항목으로 분석에 투입한 경우가 있고,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복수의 리터러시 차원과 정보 탐색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또한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에서도 정보 탐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보 불충분성만을 고려한 경우와 이와 함께 정보 수집 능력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이 있다. 이에 분석 대상이 된 각 연구에서 정보 이용 능력을 복수 차원으로 측정된 경우(= 0)와 단일 차원으로 측정된 경우(= 1)를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연구 주제는 연구의 종속변인인 정보 탐색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정보 탐색의 내용이 일반적인 온라인/인터넷 정보일 경우(= 1)와 건강일 경우(= 2), 그 이외에 과학 및 환경과 관련된 정보일 경우(= 3)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 일반적인 정보는 온라인에서의 일반적인 뉴스 이용과 인터넷 정보 이용 등이 포함되었고, 건강 주제는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특정 질병 또는 온라인에서의 건강 정보 이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과학 및 환경과 관련된 주제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원자력, 지진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 표본의 특성 역시 메타 분석에 중요한 조절 변인이 될 수 있다. 조사 대상이 된 응답자의 지역이나 연령대에 따라 리터러시나 정보 수집 능력, 정보 불충분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정 정보에 대한 탐색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또한 방법론 역시 정보 이용 능력 관련 변인과 정보 탐색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표집 방법과 조사 방법론을 조절 변인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 지역은 서울(수도권)(= 1), 비수도권(= 2), 전국(= 3)으로 구분하고, 응답자의 연령대는 대학생 여부를 활용하여 대학생(= 1), 비 대학생 성인(= 2), 노인(= 3)으로 구분해 코딩하였다. 표집 방법은 편의 표집(= 0)과 할당 표집(= 1)으로 구분하고, 방법론은 실험(= 1), 오프라인 서베이(= 2), 온라인 서베이(= 3), 혼합(= 4)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

다. 마지막으로 출판 편향을 확인하기 위해 출판된 논문(= 0)과 학위 논문과 같은 비출판 논문(= 1)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조절 변인에 대한 내용은 <Table 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Table 2. Coding of the Moderator Variables

Moderator variables		Coding	Note
Theory	literacy theory	1	The theoretical and conceptual research background, which is the basis of variables related to information use capacity, is classified into literacy theory (= 1) and RISP model (= 2)
	RISP model	2	
Measurement dimension	multiple dimensions	0	Coded by dividing the independent variable, information use capacity, into multiple sub-dimensions and examining the relationship with information-seeking behavior (= 0) and the case of looking into a single dimension (= 1)
	single dimension	1	
Topic	general info	1	Depending on the topic of information-seeking, which is the dependent variable, coding is divided into general information (= 1), health information (= 2), and scientific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 3).
	health info	2	
	science/environmental info	3	
Region	metropolitan	1	Based on region, coding is divided into Seoul (metropolitan area) (= 1), non-metropolitan area (= 2), and nationwide (= 3)
	non-metropolitan	2	
	nationwide	3	
Age group	college students	1	Age groups of the sample are coded by classifying them into college students (= 1), non-college students (= 2), and seniors (= 3)
	adults (non-college students)	2	
	seniors	3	
Sampling	convenience sampling	0	Coded by dividing into convenience sampling (= 0) and quota sampling (= 1) according to the sampling method
	quota sampling	1	
Method	experiment	1	Coded by dividing into experiment (= 1), offline survey (= 2), online survey (= 3), and mixed method (= 4)
	offline survey	2	
	online survey	3	
	mixed	4	
Publication	published	0	Published papers in academic journals are classified as published (= 0), and non-published papers such as dissertations are coded as non-published (= 1)
	non-published	1	

3) 효과 크기의 계산

메타 분석은 각 연구에서 서로 다른 척도로 측정된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연구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표준화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으로 효과 크기를 활용한다(서미옥, 2011). 본 연구에서는 효과 크기를 산출하기 위해서 피어슨의 상관계수 r 값과 표본 수를 활용하였다.

5. 분석 결과

1)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전반적인 관계

정보 이용 능력(미디어 리터러시, 헬스 리터러시, 정보 불충분성,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문제 1>에 답하기 위해 총 32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정보 이용 능력 관련 변인의 평균 효과 크기는 $r = 0.36$ ($K = 32$, 95% CI [0.28, 0.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 이용 능력 관련 변인의 효과는 양(positive)의 방향이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와 헬스 리터러시, 정보 불충분성 및 정보 수집 능력 등이 높을수록 정보 탐색 행동이 증가하는 효과를 유발하였다. 보통 코헨은 0.2 수준까지를 작은 효과로 보고, 0.5 수준까지는 중간 효과, 0.8 수준 이상을 큰 효과로 해석한다(Cohen, 1988; Sawilowsky, 2009). 이러한 기준에 따라 리터러시의 효과는 중간보다 조금 낮은 효과 크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조절 변인에 따른 효과 크기의 차이

<연구문제 2>에 답하기 위해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정보 이용 능력의 측정 차원, 정보의 주제, 연구의 방법론, 표본의 지역 및 연령대, 표집 방법, 출판 여부 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 변인으로 분석에 투입된 8개 변인 중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조절 변인은 정보 이용 능력의 측정 차원과 연구 주제, 표본의 지역, 방법론이었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정보 탐색 행동에 대한 효과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리터러시 이론($K = 24$, $r = 0.38$, 95% CI[0.30, 0.46])일 때가 RISP 모델($K = 8$, $r = 0.31$, 95% CI[0.09, 0.50])보다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가 컸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Q_B = 0.39$, $p = .53$). 다음으로 연구에 쓰인 정보 이용 능력의 측정 차원에 따라 정보 탐색 행동에 대한 효과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단일 차원으로 정보 이용 능력을 측정했을 때($K = 21$, $r = 0.46$, 95% CI[0.37, 0.55])가 복수 차원으로 정보 이용 능력을 측정했을 때($K = 11$, $r = 0.15$, 95% CI[0.04, 0.25])에 비해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Q_B = 18.50$, $p = <.001$). 조절 변인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해당 변인에 따라 정보 이용 능력 변인의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에 쓰인 정보 탐색 행동의 주제가 일반 정보와 건강 정보, 과학/환경 정보인지에 따라 정보 탐색 행동에 대한 효과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니, 연구 주제가 건강일 때($K = 21$, $r = 0.42$, 95% CI[0.32, 0.51])가 일반일 때($K =$

7, $r = 0.31$, 95% CI[0.18, 0.43])보다 정보 이용 능력이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컸고, 조절 변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Q_B = 7.49$, $p = .02$).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연구에 쓰인 방법론이 오프라인 서베이일 때($K = 9$, $r = 0.49$, 95% CI[0.35, 0.61])가 혼합일 때($K = 4$, $r = 0.42$, 95% CI[0.28, 0.55])보다, 혼합일 때가 온라인 서베이일 때($K = 17$, $r = 0.31$, 95% CI[0.19, 0.42])보다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가 컸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Q_B = 9.68$, $p = .02$). 다음으로 표본의 지역에 따른 효과 크기의 차이를 보면, 지역이 비수도권일 때($K = 8$, $r = 0.54$, 95% CI[0.35, 0.69])가 서울(수도권)일 때($K = 4$, $r = 0.43$, 95% CI[0.33, 0.52])보다, 서울(수도권)일 때가 전국일 때($K = 20$, $r = 0.27$, 95% CI[0.16, 0.37])보다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가 컸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Q_B = 8.01$, $p = .01$). 연구에 쓰인 표본의 특성과 관련 있는 조절 변인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 대상이 된 응답자 연령대의 경우 대학생($K = 4$, $r = 0.55$, 95% CI[0.23, 0.76]), 노인($K = 2$, $r = 0.44$, 95% CI[0.36, 0.51]), 일반 성인($K = 26$, $r = 0.32$, 95% CI[0.23, 0.41]) 순으로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가 컸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Q_B = 4.79$, $p = .09$). 표본의 표집 방법에 따른 정보 탐색 행동의 효과 크기에 대해 살펴보면, 편의 표집($K = 18$, $r = 0.41$, 95% CI[0.29, 0.51])과 할당 표집($K = 14$, $r = 0.30$, 95% CI[0.17, 0.42]) 중에서는 편의 표집의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Q_B = 1.5$, $p = .21$). 정보 이용 능력이 정보 탐색에 미치는 효과가 응답자의 연령이나 표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판 여부에 따른 효과 크기의 차이는 출판 논문($K = 26$, $r = 0.37$, 95% CI[0.28, 0.46])과 비출판 논문($K = 6$, $r = 0.32$, 95% CI[0.06, 0.54])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Q_B = 0.16$, $p = .69$), 이러한 결과는 출판 편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³⁾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3)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깔때기 도표와 로젠탈의 안전성 계수를 통해 출판 편향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깔때기 도표에서 출판 편향의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성 계수(fail-safe N)는 4722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본 연구의 유의미한 결과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4722개의 유의미하지 않은 비출판 논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이는 본 연구에 출판 편향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 준다.

Table 3. Meta-analysis Result

Variable	<i>K</i>	<i>r</i>	95%CI	<i>Q_B</i>	<i>p</i>
overall effect	32	0.36***	0.28, .44		
Moderator variables					
Theory				.39	.53
literacy theory(= 1)	24	.38	.30, .46		
RISP model(= 2)	8	.31	.09, .50		
Measurement dimension				18.50	< .001
single(= 1)	21	.46	.37, .55		
multiple(= 0)	11	.15	.04, .25		
Topic				7.49	.02
general info(= 1)	7	.31	.18, .43		
health info(= 2)	21	.42	.32, .51		
science/environmental info(= 3)	4	.12	-.08, .32		
Region				8.01	.01
metropolitan(= 1)	4	.43	.33, .52		
non-metropolitan(= 2)	8	.54	.35, .69		
nationwide(= 3)	20	.27	.16, .37		
Age group				4.79	.09
college students(= 1)	4	.55	.23, .76		
non-college students(= 2)	26	.32	.23, .41		
seniors(= 3)	2	.44	.36, .51		
Sampling				1.5	.21
convenience sampling(= 0)	18	.41	.29, .51		
quota sampling(= 1)	14	.30	.17, .42		
Methods				9.68	.02
experiment(= 1)	2	.04	-.25, .33		
offline survey(= 2)	9	.49	.35, .61		
online survey(= 3)	17	.31	.19, .42		
mixed(= 4)	4	.42	.28, .55		
Publication				.16	.69
published(= 0)	26	.37	.28, .46		
non-published(= 1)	6	.32	.06, .54		

K = 효과 크기의 수, *r* = 효과 크기, CI = 신뢰 구간, *Q_B* = 집단 간 이질성(between group heterogeneity), *p* = 집단 간 이질성(*Q_B*)의 유의도

6. 결론

본 연구는 메타 분석을 통해 개인의 정보 이용 능력이라는 독립 변인이 정보 탐색 행동이라는 종속 변인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변인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정보 이용 능력(미디어 리터러시, 헬스 리터러시, 정보 불충분성,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총 32개 연구를 대상으로 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 정보 이용 능력이 높을수록 정보 탐색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정적(positive) 효과가 있었으며, 평균 효과 크기는 $r = 0.36$ (95% CI[0.28, 0.44])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헬스 리터러시, 정보 불충분성 및 정보 수집 능력 등의 정보 이용 능력이 정보 탐색 행동을 더 활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 이용 능력이 정보 탐색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개별 연구에서 활용하는 정보 이용 능력 변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선행 연구들에서는 정보 이용 능력이 정보 탐색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거나(심민선 등, 2018; 조옥희 등, 2021) 부분적으로만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경우(김성은 등, 2019)가 있었다. 또한 일부 연구(구윤희 등, 2020; 김영옥 등, 2017; 허서현·김영옥, 2015)에서는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많다고 인식함에도 정보 탐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이처럼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에 대한 일관 되지 않은 연구 결과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메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통합적인 결론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연구문제 2>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 연구에 쓰인 정보 이용 능력의 측정 차원, 정보 탐색의 주제, 방법론, 표본의 지역 및 연령대, 표집 방법과 출판 여부 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문제 1>에서 살펴본 정보 탐색 행동에 대한 개인의 정보 이용 능력의 정적인 효과는 여러 가지 조절 변인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 되었다. 첫 번째로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는 측정 차원이 단일 차원일 때가 복수 차원일 때보다 더 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일 차원의 정보 이용 능력 측정 방법이 선행 연구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그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 탐색 행동과 더 강한 정적 관계를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방법론적으로 요인 분석 등을 통해 구분된 복수 차원의 정보 이용 능력인 경우, 이질적인 각 하위 차원이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일 차원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효과 크기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 정보 이용 능력을 복수 차원으로 측정된 연구들을 보면, 선행 연구들(Hargittai & Hsieh, 2012; Park & Burford, 2013)을 참고하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

시를 ‘접근’, ‘이해’, ‘창조’ 능력으로 구분하거나(권예지 등, 2018), 인터넷 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소통’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로 재구성하고(김남선 등, 2016), 건강문해력을 ‘접근’, ‘이해’, ‘판별’, ‘활용’으로 구분하여(김성은 등, 2019) 정보 탐색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각 연구에 활용된 정보 이용 능력 중,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차원의 리터러시는 정보 탐색 행동과 더 깊은 연관성이 있지만, 정보를 업로드 하거나 편집하는 등 정보 생산과 관련된 리터러시나 정보를 얻은 이후 그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여 활용하는 비판적 리터러시는 정보 탐색 행동과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 관계를 보일 수 있다. 한편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 경우(김효정, 2019; 이해규·백혜진, 2019), 특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보 불충분성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용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측정한 정보 수집 능력이 정보 탐색 행동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맥락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정보 이용 능력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정보 탐색 행동에 대한 서로의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탐색하는 정보가 일반 정보($r = 0.31$)인지, 건강 정보($r = 0.42$)인지에 따라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터러시 이론과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로 구분한 이론적 배경에 따른 효과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정적인 영향 관계는 어떠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보 이용 능력을 살펴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탐색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주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리터러시 이론과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 모두 정보 탐색 행동을 예측하는 데 매우 적합한 이론으로,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는 리터러시 이론 기반인지,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 기반인지에 상관 없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용하는 정보의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주제가 일반적인 주제보다 개인의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메타 분석 연구(Liu et al., 2022)에서 정보 불충분성과 같은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추구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관련 있는(personally relevant) 위험 주제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와 연결된다. 개인은 다양한 위험 정보 중에서도 언제라도 쉽게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이나 일반 질병과 같이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일 때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탐색 주제가 건강일 때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는 표본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본이 비수도권

인 경우($r = 0.54$)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서울(수도권)($r = 0.43$), 마지막은 전국($r = 0.27$) 순으로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디바이드 논의에서는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에 정보 이용 능력과 활용에 격차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큰 효과 크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메타 분석 결과, 비수도권이 가장 큰 효과 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사 지역이 비수도권이었던 연구 대부분이 시 지역에서 표본을 모집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교해 정보 이용 능력과 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초기 논의와 달리, 비수도권의 정보 이용 환경이나 정보 이용 능력, 활용의 차이가 수도권에 비해 낮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서 시/군 지역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이 100%일 때 시 지역은 100.8%로 일반 국민의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였고, 군지역은 90.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본 연구에서는 메타 분석의 한계로 연구에 활용된 표본의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국으로 크게 분류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활용 수준이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좀 더 명확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는 연구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에 쓰인 방법론이 오프라인 서베이($r = 0.49$), 오프라인과 온라인 혼합방법($r = 0.42$), 온라인 서베이($r = 0.31$) 순으로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오프라인 서베이를 이용한 연구와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베이를 혼합하여 이용한 연구의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응답 환경에 따른 자기 보고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에 대한 측정이 주로 응답자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자기 보고로 이루어졌는데, 응답자가 사회적 요망성(social desirability)에 의해 편향된 응답을 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황현정, 2020). 사회적 요망성에 의해 편향된 응답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에 대해 실제로 더 많이 했다고 응답하는 경향으로, 정보 이용 능력이나 정보 탐색 행동을 대면 상황인 오프라인 서베이를 조사했을 경우 더욱 크게 관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오프라인 서베이 조사 방법을 이용한 연구의 효과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조사 대상이 된 표본의 특성 중 표본의 지역을 제외한 응답자의 연령대, 표집 방식은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 차이를 만드는 유의미한 조절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표본의 연령대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연령대에 따른 조절 효과가 없었던 본 연구 결과는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 관련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정

보 추구에 대한 연령의 조절 효과가 없었다는 기존 연구 결과(Liu et al., 2022)와 일치하는 것이다. 정보 격차에 대한 일부 연구들은 젊은 세대의 정보 이용 능력이 노인 집단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만, 정보 이용 능력이 어떠한 측면을 포착하는가에 따라 세대별 차이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연령대에 따른 정보 이용의 차이를 검토하기보다는 세대별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서로 다른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안정임과 서윤경, 김성미(2012)의 연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청소년 집단과 30세 이상 성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청소년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성인보다 더 나은 인식을 보였지만,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나 참여, 관용, 공공성 측면은 성인이 더 성숙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도 연령 집단에 따라 더 높거나 낮은 특정 정보 이용 능력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정보 탐색 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연령의 조절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집을 편의 표집이나 할당 표집 방식으로 실시했는가도 정보 이용 능력의 효과 차이를 가져오지 했으며, 출판 여부에 따른 조절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출판 편향의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미디어 이용자들은 매스미디어로부터 비교적 동질한 정보를 수동적으로 전달 받았지만, 현재의 미디어 이용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식격차설(Tichenor, Donohue, & Olien, 1970)과 디지털 격차(Hoffman & Novak, 1998) 관련 논의에 따르면 정보 이용의 불균형과 격차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및 경제적 계층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런데 미디어 이용자들이 얼마나 정보를 잘 탐색할 수 있는가는 이용자 개인이 가진 정보 이용 능력과 동기에 의해 결정되며 효율적인 정보 탐색을 위해서 이용자 개인의 정보 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메타 분석을 통해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일반적인 관계를 검토하고,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변인을 살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갖는다.

이론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정보 탐색 행동의 차이로 인한 정보 불균형과 격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정보 이용 능력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두 가지 상이한 이론적 배경 (1) 리터러시 이론과 (2) 정보탐색 관련 이론을 연결하고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리터러시 이론에서는 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헬스 리터러시를 다루었고, 정보탐색 관련 이론에서는 위험정보탐색(RISP)을 위주로 다루어 왔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두 가지 이론적 배경에 따라 정보 이용 능력이 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론과 관계없이 정보 이용 능력 관련 변인들이 정보 탐색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리터러시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 수집 능력, 나아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 역시 정보 탐색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정보 불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더 다양한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그러한 논의의 확장은 정보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헬스 캠페인 등의 기획과 집행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정보 탐색의 주제가 일반 주제일 때보다 건강과 관련된 주제일 때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가 더 강하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적절한 의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보 이용 능력이 특히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보 이용 능력이 낮은 경우, 팩트체크 등의 적극적인 정보탐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오정보나 허위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보건 헬스 관련 상황에서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메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관련 연구들의 전반적인 효과와 조절 변인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연구에서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광의의 정보 이용 능력 개념을 구성하였는데, 전통적이고 엄격한 기준에서 정보 불충분성이 정보 이용 능력인 리터러시와 동등한 개인의 능력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위험정보 탐색처리(RISP) 모델에서 정보 불충분성이 정보 탐색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서 작동하는 개인의 정보 처리에 대한 욕구나 능력에 대한 인식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리터러시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리터러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리터러시 이론과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을 분리하여 메타 분석을 진행한다면 리터러시 이론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개인적 요인들의 조절 효과와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에서 고려되는 정보 추구의 맥락의 조절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32개 연구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연구의 수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정보 탐색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선행 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최근 들어 점차 축적되고 있지만 정보 이용 능력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의 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이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메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연구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이론적 배경의 연구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제약이 곧 이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다. 물론 메타 분석에서 많은 수의 연구가 필수조건은 아니며, 통계적으로도 메타 분석은 2개의 연구만으로도 실행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Goh, Hall, & Rosenthal, 2016; Littell, Corcoran, & Pillai, 2008). 그리고 기존에 이루어진 정보 탐색 행동과 관련된 메타 분석 연구 중에서도 20개 이하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다(예를 들면, Hallyburton & Evarts, 2014; McMullan, Berle, Arnáez, & Starcevic, 2019; Yang et al., 2014). 하지만,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의 좀 더 일반화된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향후 축적되는 연구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메타 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절 변인 중 정보 이용 능력의 측정 차원과 정보 탐색의 대상이 되는 연구 주제, 방법론, 표본의 지역만이 미디어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의 수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더 많은 조절변인을 포함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더 많은 연구가 축적된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조절 변인을 고려하여 미디어를 통한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탐색 행동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을 통합 정리한 최초의 국내 연구이자, 다양한 이론적 배경(리터러시 이론과 정보 탐색 관련 이론), 그리고 다양한 주제(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헬스 리터러시 등)를 통합하여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Ahn, J. (2022). Contradictories about COVID-19 airborne transmission, information seeking and avoidance: The mediating effects of information insufficiency and uncertainty. *Journal of Speech, Media & Communication Research*, 21(4), 77-109. [안지수 (2022). 코로나19의 공기 전염에 대한 상반된 정보와 정보추구 및 회피행동: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불확실성의 매개 효과. <한국소통학보>, 21권 4호, 77-109.]
- Ahn, J. I., & Seo, Y. K. (2014). An analysis of sub-factors of digital media literacy divide: Focusing on the effects of generation and economic statu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69-78. [안정임·서윤경 (201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의 세부요인 분석: 세대와 경제수준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2권 2호, 69-78.]
- Ahn, J. I., Seo, Y. K., & Kim, S. (2012). A study on the generation gap in media literacy awareness in social media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6(6), 129-176.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2).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인 검증. <한국방송학보>, 26권 6호, 129-176.]
- Ahn, S. (2017). Analysis of cause on difference of ICT literacy level according to region scale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21(5), 595-605. [안성훈 (2017). 초등학생의 지역규모별 ICT 리터러시 수준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1권 5호, 595-605.]
- Alam, Md. A., & Kim, K. (2018). Predicting multidimensional news use behaviors on Facebook: The role of motivations, media habits, and digital media literacy. *Kookmin Social Science Reviews*, 31(1), 113-146. [Alam, Md. A., & 김균수 (2018). 페이스북을 통한 뉴스 이용행위의 다차원성: 이용동기, 습관,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권 1호, 113-146.]
- An, S. T., & Jeong, J. S. (2019). Social support and health-related online activities among older adults: Assessing the mediating role of empowerment and the moderating role of health literacy.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tudies*, 33(5), 163-190. [안순태·정재선 (2019).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와 온라인 건강정보행동: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헬스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3권 5호, 163-190.]
- An, S. T., Lim, Y., & Chung, S. (2020).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health information behavior: Effects of the elderly's digital literac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40(5),

- 833-854. [안순태·임유진·정순돌 (2020). 건강정보행동을 통한 심리적 건강: 노인의 디지털리터러시 효과. <한국노년학>, 40권 5호, 833-854.]
- Andrus, M. R., & Roth, M. T. (2002). Health literacy: A review. *Pharmacotherapy: The Journal of Human Pharmacology and Drug Therapy*, 22(3), 282-302.
- Aufderheide, P. (1993). Media literacy: A report of the 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on media literacy. Aspen, CO: Aspen Institute.
- Chang, C. C., & Huang, M. H. (2020). Antecedents predicting health information seeking: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54, 102115.
- Chang, F. C., Chiu, C. H., Chen, P. H., Miao, N. F., Lee, C. M., Chiang, J. T., & Pan, Y. C. (2015).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nd adolescent eHealth literacy and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in Taiwa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8(10), 618-624.
- Chen, D.-T., Wu, J., & Wang, Y.-M. (2011). Unpacking new media literacy. *Journal on Systemics, Cybernetics and Informatics*, 9(2), 84-88.
- Cho, O. H., Hwang, K. H., & Kim, M. N. (2021).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younger children's par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4), 403-411. [조옥희·황경혜·김미나 (2021).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영향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9권 4호, 403-411.]
- Choi, C. S. (2021). Uncertainty appraisals of fake news and its impact on subsequent information seeking. *Communication Theories*, 17(1), 5-53. [최창식 (2021). 가짜뉴스에 대한 감정이 사실 확인 노력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 관리 이론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7권 1호, 5-53.]
- Choi, I. H., Yum, J. Y., Kim, R. W., & Jeong, S. H. (2018). Effects of income, age, and need for cognition on digital media skills and new media literacy.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5(2), 181-221. [최인호·염정운·김류원·정세훈 (2018). 소득, 연령, 인지욕구가 뉴미디어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과 연령과 인지욕구의 조절효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5권 2호, 181-221.]
- Christ, W. G., & Potter, W. J. (1998). Media literacy, media education, and the academy. *Journal of Communication*, 48(1), 5-15.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 Erlbaum Associates.
- Czaja, R., Manfredi, C., & Price, J. (2003).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information seeking among cancer patient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8(6), 529-562.
- DiMaggio, P., Hargittai, E., Neuman, W. R., & Robinson, J. P. (2001). Social implications of the Interne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1), 307-336.

- Glass, G. V. (1976). Primary, secondary, and meta-analysis of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5(10), 3-8.
- Goh, J. X., Hall, J. A., & Rosenthal, R. (2016). Mini meta-analysis of your own studies: Some arguments on why and a primer on how.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0(10), 535-549.
- Griffin, R. J., Dunwoody, S., & Neuwirth, K. (1999). Proposed model of the relationship of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to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behaviors. *Environmental Research*, 80(2), S230-S245.
- Griffin, R. J., Neuwirth, K., Dunwoody, S., & Giese, J. (2004). Information sufficiency and risk communication. *Media Psychology*, 6, 23-61.
- Griffin, R. J., Yang, Z. J., ter Huurne, E., Boerner, F., Ortiz, S., & Dunwoody, S. (2008). After the flood: Anger, attribution, and the seeking of information. *Science Communication*, 29, 285-315.
- Hallyburton, A., & Evarts, L. A. (2014). Gender and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A five survey meta-analysis. *Journal of Consumer Health on the Internet*, 18(2), 128-142.
- Hargittai, E., & Hsieh, Y. P. (2012). Succinct survey measures of web-use skill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0(1), 95-107.
- Hoffman, D. L., & Novak, T. P. (1998). Bridging the racial divide on the Internet. *Science*, 280(5362), 390-391.
- Hovick, S. R., Liang, M. C., & Kahlor, L. (2014). Predicting cancer risk knowledge and information seeking: The role of social and cognitive factors. *Health Communication*, 29(7), 656-668.
- Huh, S., & Kim, Y. (2015). A comparativ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risk in the context of risk types-focusing on typhoon and hydrofluoric acid spill risk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70(2), 246-276. [허서현·김영옥 (2015). 위험 유형에 따른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 과정 연구: 불산 유출과 태풍 관련 위험 상황 비교 중심. <한국언론정보학보>, 70권 2호, 246-276.]
- Hwang, H. (2020). Examining measurement errors of self-reported news expos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황현정 (2020). 뉴스 노출의 자기보고식 측정 오차에 대한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Hwang, Y. S., Park, N. S., Lee, H. J., & Lee, W. T. (2012). Exploring digital literacy in convergent media environment: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generation gap.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2), 198-225. [황용석·박남수·이현주·이원태 (2012).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격차 연구. <한국언론학보>, 56권 2호, 198-225.]

- Jin, B., & Yoon, Y.-J. (2021). The antecedents of risk information seeking of COVID-19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from China: Moderated moderation analyses of perceived knowledge insufficiency and moderation analyses of perceived knowledge. *Journal of Speech, Media & Communication Research*, 20(3), 423-458. [진범섭·윤영집 (2021). 중국 유학생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정보 탐색의 선행요인 분석: 인식된 지식 불충분성의 조절된 조절효과 및 인식된 지식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소통학보>, 20권 3호, 423-458.]
- Kahlor, L., Dunwoody, S., Griffin, R. J., Neuwirth, K., & Giese, J. (2003). Studying heuristic systematic processing of risk communication.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23(2), 355-368.
- Kim, E., & Yu, H. S. (2020). A study on the predictive factors influencing the exposure and acceptance of fake news. *Broadcasting & Communication*, 21(1), 93-126. [김은정·유홍식 (2020). 이념 성향·강도, 적대적 매체 지각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짜뉴스 노출과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1권 1호, 93-126.]
- Kim, H., & Xie, B. (2017). Health literacy in the eHealth era: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100(6), 1073-1082.
- Kim, H. H. (2022).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infant parents in an untact environ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김해원 (2022). <비대면 환경에서 유아 부모의 건강정보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Kim, H. J. (2019). Roles of risk perception, fear, and anger in information behaviors about nuclear energy: Based on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 model.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3(2), 7-45. [김효정 (2019). 위험인식, 두려움, 분노가 원자력정보 탐색과 처리, 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 위험정보탐색처리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3권 2호, 7-45.]
- Kim, H. J. (2022). The effect of information-seeking strategies among online dating app users: Trust, desire to date, relationship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김희주 (2022). <온라인 데이팅 앱 이용자의 정보 추구 전략에 따른 유형과 특성: 신뢰, 오프라인 관계 형성 의도, 관계 만족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Kim, H. J., Chong, E., Kim, E. M., Yang, S., Lee, J. W., & Kang, M. (2020). Fake news and fact check news differences: Focusing on news usage, perception, and literacy in multi-media environm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101, 231-267. [김형지·정은령·김은미·양소은·이재우·강

- 민지 (2020).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뉴스 노출 집단의 미디어 이용과 뉴스 인식, 그리고 리터러시 관계. <한국언론정보학보>, 101호, 231-267.]
- Kim, K.-H., & Choi, J. (2021). The influences of media literacy (critical comprehension and social communication) on cognitive and behavioral outcomes in the context of COVID-19.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109, 99-123. [김경희·최정화 (2021). 팬데믹 상황에서의 인지적 정보처리와 행위적 실천: 비판적 이해와 사회적 소통능력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9호, 99-123.]
- Kim, K.-H., Kim, G. J., & Lee, S. J. (2019). Media literacy components and generation gap in the mobile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33(4), 55-36. [김경희·김광재·이숙정. (2019). 모바일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 요소와 세대 간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 <한국방송학보>, 33권 4호, 5-36.]
- Kim, K.-W. (2021). The role of health literacy in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김경원 (2021). <The role of health literacy in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Kim, M. N., Yoo, Y. S., Hwang, K. H., & Cho, O. H. (2019). The effects of office workers' attitudes to internet health information, e-health literacy on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health-related behavioral in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1), 357-367. [김미나·유양숙·황경혜·조옥희 (2019). 직장인의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e-헬스리터러시가 건강정보추구 행동과 건강관련행위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권 11호, 357-367.]
- Kim, N. S., Lee, K. E., & Son, H. J. (2016). Comparison of health consciousness and smart-phone literacy according to the type of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ternet among on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1(1), 112-122. [김남선·이규은·손현정 (2016). 일 대학교 대학생의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 유형에 따른 건강의식 및 스마트폰 리터러시 비교.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1권 1호, 112-122.]
- Kim, S., Choi, J., & Park, D. J.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sub-dimensions of health literacy and health-related behaviors among Korean adul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9(1), 334-364. [김성은·박동진·최정화 (2019). 일반 성인의 건강문해력의 하위 차원과 건강 관련 행위간의 관계. <보건사회연구>, 39권 1호, 334-364.]
- Kim, Y., Kim, Y., & Kim, S. (2018). Risk seeking and processing on climate chang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channel beliefs, and behavioral belief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2(5), 72-106. [김영욱·김영지·김수현 (2018).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정보 추구 및 처리 연구: 정보원 신뢰도, 행동에 대한 태도, 인지된 정보 수집 능력의 조절효과 중심. <한국언론학보>, 62권 5호, 72-106.]

Kim, Y., Lee, H., Lee, H., & Kim, H. (2017).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about particulate matter: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hina attribution, health symptom experience, perceived information capacity, and relevant channel belief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5(2), 5-44. [김영욱·이현승·이혜진·김혜인 (2017).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공중들의 정보탐색과 처리에 대한 연구: 인지된 정보 수집 능력, 언론 정보원 신뢰, 책임 귀인과 경험 정도의 조절 효과 분석.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5권 2호, 5-44.]

Koc, M., & Barut, E.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ew Media Literacy Scale (NMLS) for university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3, 834-843.

Korea Press Foundation. (2022) Media users in Korea 2022. Retrieved 04/14/23 from https://www.kpf.or.kr/front/research/consumerDetail.do?miv_pageNo=&miv_pageSize=&total_cnt=&LISTOP=&mode=W&seq=593615&link_g_topmenu_id=676f2f0f377b4b19840685a46f69a233&link_g_submenu_id=f193a96c92284493b56f35b5f0eb15e3&link_g_homepage=F®_stadt=®_enddt=&searchkey=all1&searchtxt=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2022 언론수용자 조사.]

Krikelas, J. (1983).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Patterns and concepts. *Drexel Library Quarterly*, 19(2), 5-20.

Ku, Y. H., Ahn, J., & Noh, G. Y. (2020). Relationships between particulate matter risk perception, information seeking and preventive behaviors: An application of extended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4(1), 5-28. [구윤희·안지수·노기영 (2020). 미세먼지 위험인식이 위험정보 처리와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확장된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의 적용. <한국방송학보>, 34권 1호, 5-28.]

Kuhlthau, C. C. (1991). Inside the search process: Information seeking from the users' pro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2(5), 361-371.

Kwon, Y., Na, E. Y., & Lee, S. Y. (2018). Influencing factors and outcomes of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ccording to platform: Focusing on socioeconomic factors, digital media literacy,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Health Communication Research*, 17(1), 1-46. [권예지·나은영·이상엽 (2018). 플랫폼에 따른 건강정보추구 행동의 영향요인과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을 중심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17권 1호, 1-46.]

- Lee, B. K., Byoun, W. J., & Lim, J. L. (2010). The influence of individual's e-health literacy on doctor-patient communication.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7(3), 89-125. [이병관·변용준·임주리 (2010). 개인의 e-헬스 리터러시(e-Health Literacy)가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권 3호, 89-125.]
- Lee, B.-K., Noh, H.-H., & Lee, T. (2021). The effects of new media literacy on news fact check behavior: The moderating effect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fake news attitude and factchecking motivation. *Journal of Public Relations*, 25(4), 31-56. [이병관·노환호·이태준 (2021). 뉴미디어 리터러시가 뉴스 팩트체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성의 조절효과와 가짜 뉴스 태도 및 사실확인 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PR연구>, 25권 4호, 31-56.]
- Lee, H., Hwang, Y., & Jeong, S.-H. (2021). Information seeking and sharing while using media: The role of personality traits and digital literac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5(1), 236-269. [이하나·황유리·정세훈 (2021). 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검색과 공유 행동에 관한 연구: 성격 특성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할. <한국언론학보>, 65권 1호, 236-269.]
- Lee, H. G., & Paek, H. J. (2019). Effects of information insufficiency, perceived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and temporal distance on people's information seeking and avoidance about earthquake.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23(3), 84-108. [이혜규·백혜진 (2019). 정보 불충분성, 정보 수집 능력, 시간적 거리가 지진에 관한 정보 추구 및 회피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 연구>, 23권 3호, 84-108.]
- Lee, M. J., & An, S. T. (2016). Intention to use SNS public health information among the middle aged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dvertising Research*, 108, 87-122. [이민지·안순태 (2016). 중장년층의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의도: 기술수용모델(TAM)의 적용. <광고연구>, 108호, 87-122.]
- Lee, S., Son, H., Lee, D., & Kang, H. (2017). The influence of e-health literacy,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ternet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2(4), 55-67. [이성심·손현정·이동숙·강현욱 (2017). e-헬스 리터러시 주관적 건강상태 및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 추구행위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 학회지>, 12권 4호, 55-67.]
- Lee, Y. H., Ji, E. J., & Yun, O. J. (2019). Health concern,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e-health literacy and health behavior in aged women: Focused on 60-70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4), 39-47. [이영희·지은주·윤옥중 (2019). 여성노인의 건강관심도, 건강정보지향, 인

- 터넷 건강정보 문해력 및 건강행위: 60-70대를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9권 4호, 39-47.]
- Lim, H. A. (2021). The influence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e-health literacy on health behavior of coronary artery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University, Daegu, Korea. [임홍아 (2021). <관상동맥질환자의 온라인 건강정보 지향과 e-헬스 리터러시가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Lipsey, M. W., & Wilson, D. B. (2001). *Practical meta-analysis*. SAGE Publications, Inc.
- Littell, J. H., Corcoran, J., & Pillai, V. (2008).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Pocket Guide to Social Work Re.
- Liu, Z., Yang, J. Z., & Feeley, T. H. (2022). Reduced Risk Information Seeking Model (RISK): A meta-analysis. *Science Communication*, 10755470221144453.
- Livingstone, S. (2004). Media literacy and the challenge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Communication Review*, 7(1), 3-14.
- McMullan, R. D., Berle, D., Arnáez, S., & Starcevic, V. (2019). The relationships between health anxiety,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and cyberchondri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45, 270-278.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3). 2022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Retrieved 07/03/23 from <https://www.msit.go.kr/publicinfo/view.do?sCode=user&mPid=62&mId=63&publicSeqNo=347&publicListSeqNo=10&formMode=R&referKey=347,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 Nam, S. J. (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gital literacy between aged consumers and general consumers: Verification of a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education, income, and area.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9(4), 55-65. [남수정 (2013). 중고령층 소비자와 일반 소비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비교: 성별, 학력, 소득, 지역의 조절효과 검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9권 4호, 55-66.]
- Nam, Y. H., & Jung, I. S. (2020, March).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e-health literacy,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and health behavior on the health information use motive in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1(3), 513-520. [남영희·정인숙 (2020).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e-헬스 리터러시, 건강정보 신뢰도 및 건강행위가 건강정보 이용 동기에 미치는 영향 비교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1권 3호, 513-520.]
- Norman, C. D., & Skinner, H. A. (2006). eHealth literacy: Essential skills for consumer health in a

- networked world.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8(2), e9.
- Park, D. J., Kwon, M. S., & Choi, J. H. (2013). The influence of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attitude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and e-health literacy on personal health behavior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7(3), 379-413. [박동진·권명순·최정화 (2013). 개인의 건강정보지향, 모바일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e헬스 리터러시 수준과 건강 관련 행위의 관계. <홍보학 연구>, 17권 2호, 379-413.]
- Park, E., & Kwon, M. (2018). Health-related internet use by children and adolescents: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0(4), e120.
- Park, S., & Burford, S. (2013). A longitudinal study on the uses of mobile tablet devices and changes in digital media literacy of young adults. *Educational Media International*, 50(4), 266-280.
- Park, S. H. (2020). A study on active use of mobile health information focusing on user's technology adoption attitude and health information seek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박상희 (2020). <모바일 건강정보의 능동적 이용에 대한 연구: 이용자들의 기술수용 태도와 건강정보추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Ratzan, S. C., & Parker, R. M. (2000). *Health literacy*.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urrent bibliographies in medicine. Bethesda: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Rothstein, H. R., Sutton, A. J., & Borenstein, M. (2005). Publication bias in meta analysis. in H. R. Rothstein, A. J. Sutton, & M. Borenstein (Eds.), *Publication bias in meta analysis: Prevention, Assessment and adjustments* (pp. 1-7). John Wiley & Sons.
- Sawilowsky, S. S. (2009). New effect size rules of thumb. *Journal of Modern Applied Statistical Methods*, 8(2), 467-474.
- Shaw, A., Ibrahim, S., Reid, F., Ussher, M., & Rowlands, G. (2009). Patients' perspectives of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and information giving across a range of literacy level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75(1), 114-120.
- Seo, J. S. (2022). Personal characteristics affecting fact-checking information seeking and sharing : Focused on the Covid-19 in South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서정선 (2022). <팩트체크 정보 추구하고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Seo, M. (2016). Effects of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on MERS preventive behaviors and moderating roles of SNS use during 2015 MERS outbreak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78, 116-140. [서미혜 (2016). 메르스 관련 위험정보 탐색과 처리가 메르스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의 확장과 SNS 이용 정도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8호, 116-140.]

Shaw, A., Ibrahim, S., Reid, F., Ussher, M., & Rowlands, G. (2009). Patients' perspectives of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and information giving across a range of literacy level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75(1), 114-120.

Shim, M. (2022).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media message literacy competenci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116, 38-76. [심미선 (2022). 미디어메시지 리터러시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116호, 38-76.]

Shim, M., Jo, H. S., & Jung, S. M. (2018). The associations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search and eHealth literacy with perceived information usefulness: Analysis in the context of diet and weight control.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8(2), 119-127. [심민선·조희숙·정수미 (2018).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정보탐색 유형별 인지된 정보유용성 분석: 다이어트 및 체중조절 관련 정보탐색을 중심으로. <보건행정학회지>, 28권 2호, 119-127.]

Shin, J.-M., & Lee, S. S. (2020). An exploratory study for acceptance of fake news and its explan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3), 1335-1348. [신지민·이성식 (2020). 가짜뉴스의 수용 그 설명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문사회 21>, 11권 3호, 1335-1347.]

Skoric, M. M., Zhu, Q., Goh, D., & Pang, N. (2016). Social media and citizen engagement: A meta-analytic review. *New Media & Society*, 18(9), 1817-1839.

Son, H. J., & Kang, H. W. (2022). The influence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and e-health literac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s in middle-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3), 55-65. [손현정·강현욱 (2022). e-헬스 리터러시와 인터넷 건강정보추구행위가 중년여성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권 3호, 55-65.]

Song, H. (2014). Consideration to influence factor of using internet information and the second digital divide: Focus on users' digital literacy, perceived awareness, and self-efficacy.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8, 85-116. [송효진 (2014). 질적 정보격차와 인터넷 정보이용의 영향요인 고찰: 이용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인식,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권 2호, 85-116.]

Suh, M. O. (2011). The review of meta-analysis and research methodology proposed.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9(2), 1-23. [서미옥 (2011). 메타분석 연구의 고찰과 연구방법론적인 제안.

<교육학연구>, 49(2), 1-23.]

- Tichenor, P. J., Donohue, G. A., & Olien, C. N. (1970). Mass media flow and differential growth in knowledge. *Public Opinion Quarterly*, 34(2), 159-170.
- Von Wagner, C., Semmler, C., Good, A., & Wardle, J. (2009). Health literacy and self-efficacy for participating in colorectal cancer screening: The role of information processing.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75(3), 352-357.
- Wang, J., & Moon, W. (2021). Information exploration activities of local public officials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pplication of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24(1), 1-28. [왕재선·문정욱 (2021). 지능정보 사회에서 지방공무원의 정보탐색행위: 위험정보탐색·처리 모형의 적용.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4권 1호, 1-28.]
- Wang, X., Shi, J., & Kong, H. (2021).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A review and meta-analysis. *Health Communication*, 36(10), 1163-1175.
- Yang, J. Z., & Huang, J. (2019). Seeking for your own sake: Chinese citizens' motivations for information seeking about air pollution. *Environmental Communication*, 13(5), 603-616.
- Yang, Z. J., Aloe, A. M., & Feeley, T. H. (2014).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A meta-analysis. *Journal of Communication*, 64(1), 20-41.
- Yang, Z. J., McComas, K. A., Gay, G., Leonard, J. P., Dannenberg, A. J., & Dillon, H. (2011). Information seeking related to clinical trial enrollment. *Communication Research*, 38(6), 856-882.
- Yum, J. Y., & Jeong, S. H. (2019). Predictors of fake news exposure and sharing: Personality, new media literacy, and motiv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3(1), 7-45. [염정윤·정세훈 (2019). 가짜뉴스 노출과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격, 뉴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이용 동기. <한국언론학보>, 63권 1호, 7-45.]
- Zhao, Y., & Zhang, J. (2017).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eking in social media: A literature review. *Health Information & Libraries Journal*, 34(4), 268-283.

최초 투고일 2023년 04월 14일

게재 확정일 2023년 10월 06일

논문 수정일 2023년 10월 09일